

“미래 먹거리 찾는 것이 최대 고민”

조용병 신한 차기회장 내정자, “신한의 힘은 전략의 일관성과 현장·강한 추진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내정자는 지난 20일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이날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해 준 것은 지난 6년 간 그룹을 훌륭히 이끌어 온 한동우 회장에 이어 신한을 더 높이 도약시키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목표에 대해 “신한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그룹도 마찬가지로



조용병 내정자

결국 성장을 어떻게 해야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만 해도 여러가지로 답답한데, 국내·외 환경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됐고 추후 등 절차가 남아있어 말을 아끼는 게 낫다”며 “어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을 다듬어 액션플랜으로 내야 하는데 어제 말했던 큰 덩어리속에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내정자는 또 신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문화’를 꼽은 것과 관련해 “신한을 처음 만들때 로마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로마 천년의 힘은 우선 개방성과 수용성이었고 요즘은 도전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조직의 활력을 위해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것이 조직의 힘으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차기 신한을 이끌어갈 힘으로 “신한의 힘은 전략의 일관성과 현장, 이에 유연성을 더해 나가는 강한 추진력”이라며 “신배들한테 그

렇게 배웠고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향후 계열사 CEO 인선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해, 그는 “아직 현직은 행정적이고 업적평가, 인사발령 등 앞선 현안들이 많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며 “지주사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차기 회장 후보였던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전날 면접장에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 내정자는 “저도 당황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으로서 향후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뉴스시스



‘올 뉴 모닝’ 1호차 주인공 20대 워킹맘

기아자동차는 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올 뉴 모닝’의 1호차 주인공으로 워킹맘 최수빈(25·여) 씨를 선정하고 전달식을 가졌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아차는 최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김창식 국내영업본부장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최씨에게 올 뉴 모닝 1호차 및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최씨는 경기도 파주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구입한 차량은 컨비니언스, 스타일, 아트클렉션을, 무릎에어백 등 선택사양이 적용된 오로라블랙 펠 색상의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기아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자 생애 첫차 고객인 최씨에게 경제성, 실용성, 세로움, 시작이라는 이미지를 갖춘 올 뉴 모닝과 잘 어울려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생애 첫차 구매로 출퇴근과 육아 모두에 적합한 차량을 찾아 보니 무엇보다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실용성, 경제성과 스타일은 물론 처음부터 안전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통째 차량’이라는 점에 믿음이가 많아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자금세탁 방지 위해 금융사 내부규제 선진국 수준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국가 및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평가에서는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이뤄져 있다.

한국은 미국·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의 전담 인력 부족으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금융회사 모니터링 강화 현실화를 위해 보고건수 가점제를 폐지하고 내부 모니터링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증권 등 권역별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검사 및 일부 제재권한을 위탁하고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제재기준을 통일한다.

저위험거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간소화된 확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올해 관련 법제정도 추진된다. /뉴스시스

‘2017 인터파크투어 호텔 어워즈’ 성료

‘베스트 인기호텔’에 포시즌스 호텔·대명리조트&호텔·글래드호텔 여의도 선정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호텔을 시상하는 ‘2017 인터파크투어 호텔 어워즈’가 성황리에 열렸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해 숙박업계를 결산하는 ‘2017 인터파크투어 호텔 어워즈’를 지난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터파크투어 호텔어워즈는 지난 1년 동안 매출실적, 고객평가, 체크인/나우 활용도, 서비스 등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호텔을 각 부문별로 선정, 발표하는 행사다.

행사에는 인터파크투어 김양선 대표, 국내사업본부 이기환 상무 등 인터파크 임직원들과 국내 숙박업계 관계자 등 약 440여명이 참석했다.

인터파크투어 국내숙박은 채널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인터파크투어 국내숙박 객실판매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4.2%씩 고성 성장하고 있다. 또 최근 모바일 기반 숙박 예약이 활성화되면서 인터파크투어의 국내숙박앱 체크인/나우의 객실판매수는 전년 대비 40%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2017 인터파크투어 호텔어워즈’의 시상 부문은 ▲베스트 이용권 ▲베스트 인바운드 ▲베스트 신규호텔 ▲베스트 인기호텔 ▲베스트 상품평 ▲베스트 파트너 ▲베스트 세일즈 등 모두 7개다. 총 15개의 숙박업체들이 수



인터파크투어는 지난해 숙박업계를 결산하는 ‘2017 인터파크투어 호텔 어워즈’를 지난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규 제휴업체 중 월평균 매출과 회원 대응 서비스가 좋은 숙소를 선정하는 ‘베스트 신규호텔’에는 라마다 강원속초호텔이 선정됐다. 회원들의 별점 및 상품평이 좋았던 ‘베스트 상품평’에는 신라스테이 마포, 하이원 강원랜드, 네스트호텔 인천이 뽑혔다. 객실 및 가격배정, 직원 대응도, 체크인/나우 활용도 등이 뛰어난 ‘베스트 파트너’ 부문에는 호텔 리젠트 마린, 여수 히든베이호텔, 서울 신라호텔이 수상했다.

스파/테라피, 뷔페/레스토랑 등 회원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업체

를 선정하는 ‘베스트 이용권’과 실적이 우수한 인바운드 대상 호텔에 선정하는 ‘베스트 인바운드’ 부문은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각각 더파크뷰 뷔페(제주신라호텔)와 호텔 스카이라크가 선정됐다.

인터파크투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매출, 판매 건수가 가장 높은 숙소를 선정하는 ‘베스트 세일즈’에는 파라디스호텔 부산, 롯데호텔 제주, 롤링힐스 호텔이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숙소를 선정하는 ‘베스트 인기호텔’은 포시즌스 호텔, 대명리조트&호텔, 글래드호텔 여의도가 선정됐다. /뉴스시스

KT, 글로벌 5G 표준화 개발 성과 공개

NGMN 정기 포럼에서

KT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NGMN(Next Generation Mobile Networks)의 정기 포럼에 참석해 그 동안 글로벌 5G 표준화를 위한 노력과 평창 5G 시범 서비스 비전을 제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NGMN은 2006년 글로벌 통신사들의 주도로 설립된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단체다. 전세계 60%의 인구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통신사와 35개 글로벌 제조사 및 25개 연구 기관들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도입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다.

KT는 지난해 4월부터 NGMN의 5G 시험 및 시범서비스 선도 프로그램(5G Trial & Testing Initiative)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현재는 프로그램 1단계인 ‘기술 구성요소 시험(Tests of Technology Building Blocks)’의 의장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NGMN 포럼은 에릭슨, 노키아, 보더폰, 오렌지, 도이치 텔레콤 등이 참여해 5G 표준화 현황

과 상용화 기술 개발 계획들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KT는 NGMN 5G 프로그램의 의장으로서 글로벌 제조사 및 통신 사업자와 진행해온 5G 기술개발 성과와 기술검증 방안, 3GPP 5G 국제표준 반영 계획을 발표했다.

또 3GPP 5G 표준화 기준에 준하는 KT의 5G 기술과 평창 5G 시범 서비스 준비현황을 발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KT의 5G 추진 전략과 비전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제시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은 “NGMN 5G 표준화 프로그램은 5G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KT는 앞으로도 NGMN에서 적극적인 5G 표준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5G 국제 표준화 기여 및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5G 상용을 위한 핵심 기술을 3GPP에 반영하기 위해 NGMN 5G 표준화 프로그램 1단계인 기술 구성요소 시험을 오는 6월까지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